

대행 스님

지구의 오염을 막는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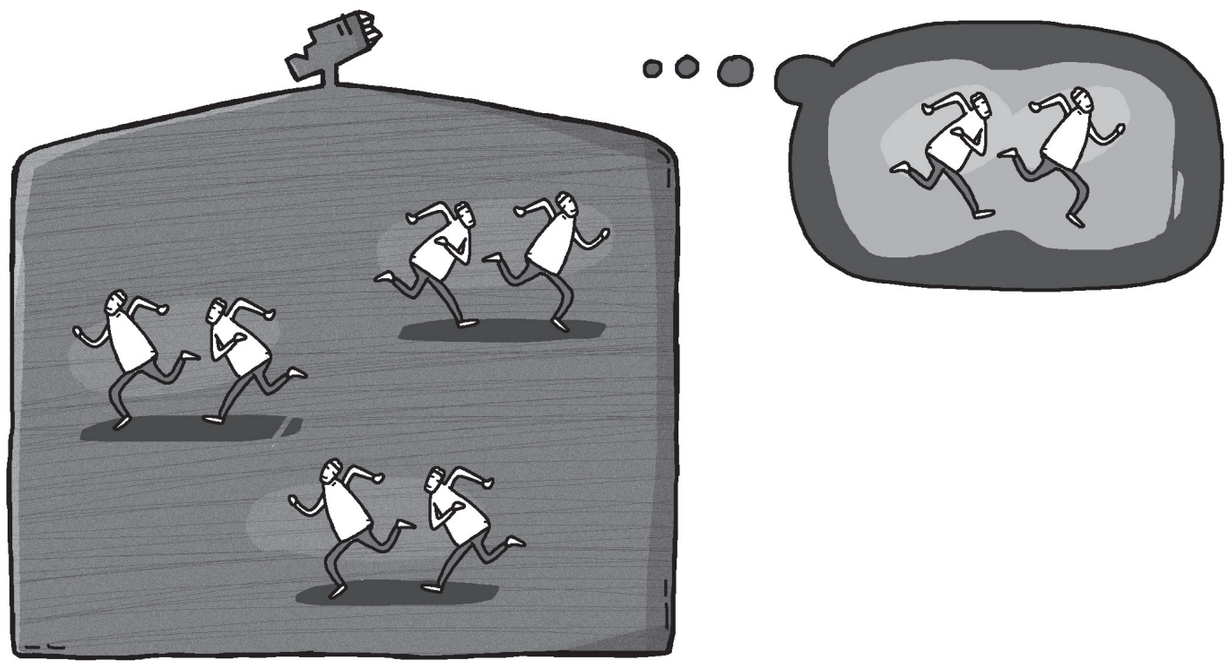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서울 법회 때 너무들 애를 쓰셔서 정말이지 감사한 마음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이하 여러분,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여기 이렇게 몸을 끌고 오신 거죠? 하하하. 이 몸뚱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보트 같아서…, 제가 겪어 봐도 그래요. 독일에서 캐나다로 왔는데 캐나다인지 독일인지 처음에 갔을 때는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 이거 로보트는 로보트로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또 여기에 와서 드러누웠다 일어나니까 방문이 어딘지, 허허허. 그렇게 멍해지더군요. 그래서요, 이 정신력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송장이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인간이 부리는 로보트로 생각을 하지 진짜 '나'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동차 속의 운전수가 진짜 '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저 스님은 지원을 저렇게 여러 군데다가 내고 돌아다니는지, 또 말끝마다 왜 저렇게 주인공, 마음을 찾으라고 간곡히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구를 보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원을 각처에 손닿는 데는 다 이렇게 내는 것은 그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 모든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다 문을 열어 주어 한마음으로 귀정 짓게 하고, 또 산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신도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역에 지원을 내기만 하면, 벌써 그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실천이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맹세코, 실천하지 못한다면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들이 이 물컵이 쓰러질 것이다, 물이 다 쏟아지면 죽는다, 이렇게 예언은 하지만 그걸 안 쓰러지게 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원에서나 본원에서나 멀고 가까움이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이어져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하면서, 바깥으로 찾지 말고 꼭 안으로 찾으라고, 일거수일투족 주인공이 하고 있고, 뛰기도 주인공이 뛴다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 육신과 정신이 어디 따로 따로 놉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빨리빨리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언덕은 물질계고 저 언덕은 정신계인데, 만약에 정신계에 도달하게 되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저 언덕을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찾다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통신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계로만 들어간다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한마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공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 한 개체도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전부 따라 준다면 이게 공덕이 되고, 개개인으로 논다면 이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한 회사가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회사를 해 나간다면, 한 구성체지만 제가끔들 논다면 한 구성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마음을 합쳐서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이 지구의 모습을 지속되게 하는 도량이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운기라고 할까, 그런 따뜻한 공기가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공기막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저 스님이 저러는지 그것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터지면 만년설이나, 남극과 북극 전부, 여름이나 겨울이나 녹지 않는 얼음이 녹게 됩니다, 모두가 달라지고. 그게 터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땅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개미처럼 어디 물 없는 데로 기어 올라가야 할까요, 어떡할까요?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마 이름해서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마음공부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자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종교 싸움에 죽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면서 절이나 하고 다니는 노라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불어 같이 둘이 아닌 내 생명, 내 모습, 모두가 산 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서 보니까 삼백삼사십 년 전에 종교 싸움에서 수없이 죽었더군요. 그래서 나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죽은 사람, 산 사람, 갇혀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을 다 틔우고, 수녀나 신부 모두, 고문을 당하고 갇힌 그 장소에서 문을 다 틔워 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얘기를 해 봅시다. 여러분이 "스님께서는 조상들을 천도시키는데 어떠한 관계로 우주떡 하나를 해 놓고 합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극난하게 먹고 살던 그 관습이 남아서, 죽어서도 그 관습을 떼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먹으려고 하는 착, 살려고 하는 관습이 그냥 누더기처럼 붙어서 자식들한테나 친척한테나 접근해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유전이 돼서 또 지금 산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해 끼침이 됩니다.

"왜 그러면 스님은 그렇게 천도를 합니까? 남들은 위패를 써서 붙이고 하는데…." 이러는 분도 있겠죠. 부처님 법에도 '백 일만 앉을 자릴 해 놓고, 즉 말하자면, 설법을 해서 설득을 해서 구원을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백 일이 뭡니까? 마냥 위패를 붙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처님 법으로도 어긋나지마는 때로는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나가고 이렇게 되니 그 영령들은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산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 진퇴에 걸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백 일만 되면, 백 일 안 돼도 돌아가시면 바로 위패를 해 놨다가 딱 살라 버리고 다시금 위패를 해서 또 모셔 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딨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 조상님들을 다, 가난한 사람은 사십구 일이 돼도 백 일로다가 채워서 그냥 천도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산 사람으로 치면 교육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앉을 자리에 앉혀 놓고, 듣게끔 하고 보게끔 하는 겁니다, 영가님들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천차만별로 직책을 줘서 내보냅니다. 머리 깎고 스님만 되는 게 선지식이 아니거든요. 다시금 이쪽으로 태어나서 선지식이 되게끔 북돋아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직책을 갖게 해 놓고 보살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게 하는 거죠. 심부름꾼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손들이 그 대에, 그 차원의 종자는 점점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보살의 행은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해서도 아니 되지마는 이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가 아니요, 그것은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 천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지 않죠. 보살의 행도 권리가 있어야만이 행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모두 문을 열고 귀가 트이고 눈을 뜨게 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하면 거기에 통신이 되고, 그래서 그 영령

☞ 22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